서산 부석사 관음상, '100일간' 환지본처

1월 24일 이운 · 고불식 봉행
647년 만에 제자리로 이운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서
서산 부석사로 여법히 봉안
부처님오신날까지 일반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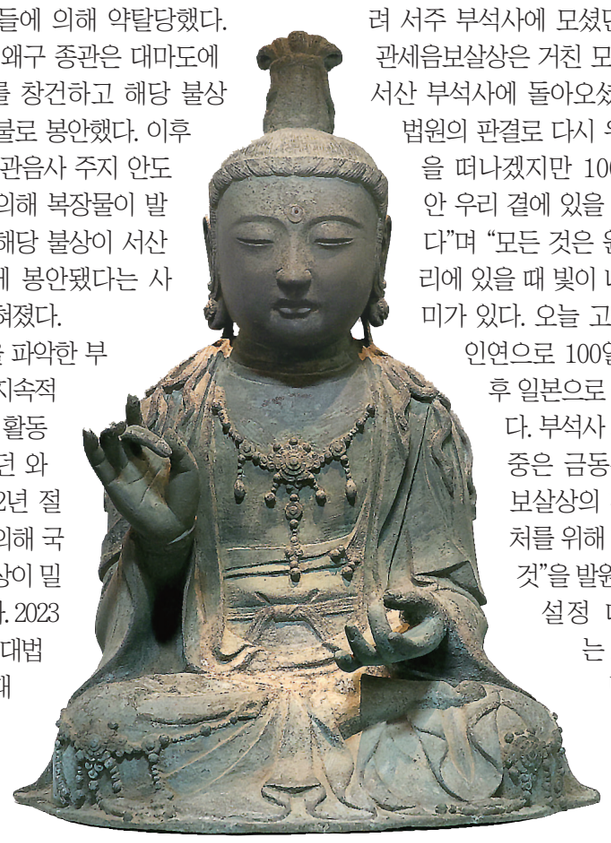
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강제로 우리 곁을 떠났던 관세음보살님이 647년 만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647년 만에 돌아오신 보살님을 100일 동안 부석사에 모시고자 합니다. 100일 봉안을 마중물로 삼아 영원히 서산 부석사에 나투시도록 온 힘을 담아 노력하겠나이다." (부석사 발원문 中)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1월 24일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고불식을 봉행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간 부석사 설법전에서 친견할 수 있다. 친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다.

이날 부석사 설법전에서 열린 고불식에는 수덕사 송원 설정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서산연합회장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정경 스님, 태안사 주지 흥법 스님,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대마도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 등 스님들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이상근 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 위원장, 김용주 부석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이상근 위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고려 부석사에 봉안됐지만 1378년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1526년, 왜구 종관은 대마도에 관음사를 창건하고 해당 불상을 주존불로 봉안했다. 이후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료순에 의해 복장물이 발견되어 해당 불상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산 부석사는 1월 24일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 ·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647년 만에 서산 부석사로 환지본처한 고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사실을 파악한 부석사가 지속적인 환수 활동을 펼치던 와중,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불상이 밀반입됐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도 관음사 점유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이 일본 대마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계종은 대마도 관음사와 한국정부에 환수 전 부석사에서 100일 친견법회 봉행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이날 친견법회가 마련됐다.

이어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귀환을 삼보전에 고하는 고불문 낭독이 진행됐다. 원우 스님은 고불문에서 "고려 서주 부석사에 모셨던 금동관세음보살상은 거친 모습으로 서산 부석사에 돌아오셨다.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우리 곁을 떠나겠지만 100일 동안 우리 곁에 있을 예정이다"며 "모든 것은 원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의미가 있다. 오늘 고불식을 인연으로 100일 봉안 후 일본으로 돌아간다. 부석사 사부대중은 금동관세음보살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매진할 것"을 발원했다.

설정 대종사는 고불식 법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서원했다. 대종사는 "애국인들이 1905년 〈황성신문〉에서 말했듯이 '시일야방성대곡'이다. 소리 내 울고 싶은 시간이다. 600여 년 전 간절한 마음으로 모셨던 관세음보살님이 일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다"며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어 기뻐서 눈물이 나고, 다시 가야한다니 슬퍼서 눈물이 또 난다"고 설했다.

"법이라는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고 하지만, 법은 양심 밑에 있는 것이 법이다. 또 양심 위에 있는 것은 신앙이다. 법원의 결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 대종사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 32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운식이 설행됐다. 이운식은 △삼귀의·반야심경 △기념사 △경과보고 △인사말 △답사 △치사 △축사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원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1330년 32인의 발원과 시주로 관세음보살이 모셔졌다. 바닷가의 재난과 역경을 보살님의 자비로 극복하려는 고려인의 혼이 담겨 있는 불상"이라며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대마도 관음사의 양해로 100일간이라도 친견법회를 하게 됐다. 이번을 계기로 한일간 불교계의 협력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님 미소와 연꽃이 만나면…

범어사 성보博 김종호 개인전
2월 8일~16일…60여 점 전시



김종호 작가의 '부처님 미소와 연꽃의 만남 I '.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2월 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김종호 작가의 제5회 개인전 '부처님 미소와 연꽃의 만남: 사계(四季)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선보이는 첫 초대전으로, 김종호 작가가 38년간의 긴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예술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김종호 작가는 종립 해동중 교장으로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헌신하며 38년간 교육의 길을 걸어왔다. 3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시와 4회의 개인전을 통해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오랜 예술적 탐구의 결실로, 불교의 자비 정신과 연꽃을 상징적인 요소로 삼아 자연의 사계절을 그린 6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김종호 작가가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한 사생 활동과 구상 회화의 진지한 탐구가 돋보인다. 연꽃과 부처님의 미소를 통해 그가 지닌 불교적 사유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자연의 생명력과 빛을 중심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시적인 상상력과 사실적 화풍이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작가는 교직 생활 중 학생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색을 찾아 그림을 그려왔다. 이번 전시는 그가 추구하는 색의 의미와 빛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중요한 이정표로, 그만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김종호 작가의 전시를 축하하며, 이번 전시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은 "김종호 작가가 전하는 자연의 정취와 불교 사상을 담은 작품들이 부산 문화예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종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고자 하며, 예술을 통해 자연과 인간, 불교적 사유를 연결시키고, 관객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계절을 담은 자연의 변화를 그린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여정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주목!'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진흥사업

묘공학술상 · 학술장학생 공모
학술상 대상에 1000만원 상금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모집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을사년에도 이어진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제8회 묘공학술상 및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묘공학술상 공모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와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는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면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선발 공모'도 이뤄진다. 응모자격은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이다. 선발인원은 0명이며 스님은 별도전형으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묘공학술상과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접수는 대행선연구원 이메일(myogong@daehaeng.org)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행선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마음연구〉 원고를 모집한다. 발간시기는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로 투고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선학 및 불교학 관련 주제이며, 연중 접수 받는다.

논문 투고 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다.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후 투고하면 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선양하는 학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학 연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정각사학술원, 불교학연구자 지원 공모

2월 20일까지 서류접수
박사 및 박사과정 대상

군포 정각사 산하 정각사학술원(원장 정엄 스님)이 불교학연구자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모사업은 오는 2월 2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 및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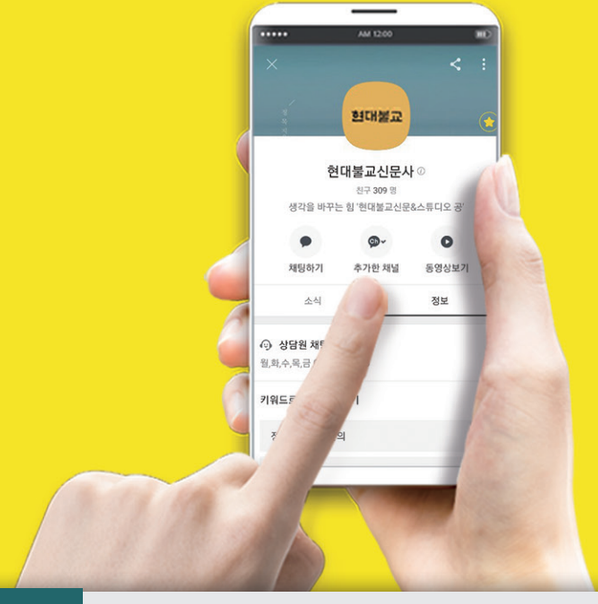
지원금액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연 1800만원(월 150만원)이며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기간 연장 여부는 정각사학술원의 별도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학부·석사·박사 과정 졸업증명서 및 박사과정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박사학위증 사본, 연구계획서, 경력 및 연구실적 목록, 불교 신행 계획서 등 구비해 해당 서류를 PDF로 만들어 이메일(so000113@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2월 27일 오후 1시 정각사 경내 학술원 상담실에서 2차 면접을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